

제7장 석유산업

1. 2022년 동향 및 진단

□ 수출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 급감으로 하락세 마감

○ 수출은 2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여 10월부터 누적 기준 감소세 전환

- 각국의 긴축정책 및 고금리,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불안, 원자재가 급등 등 물가 상승 요인으로 글로벌 석유 수입수요는 빠르게 둔화

· 석유 수출(전년동기비 %): (1분기) 14.4 → (2분기) -1.9 → (3분기) -5.8 → (10월) -19.1

· 국제유가: 두바이유 기준 (2021년 평균, 한국석유공사) 69.41달러/배럴 → (2022. 11. 1) 91.44달러/배럴, 39.7% 상승

□ 내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로 증가세

○ 2022년 내수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확대되어 의류 소비가 확대

- 2021년까지 코로나로 억제된 보복소비 심리가 작용하고, 온라인 거래의 지속 성장과 더불어 야외 활동 증가로 온·오프라인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내수 확대

- 그러나 의류의 소매 판매는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불황, 고금리 및 경기 위축 등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
 - 민간 소비 성장률(전년동기비, 한국은행): (1분기) 4.3% → (2분기) 3.9% → (3분기) 5.9%
 - 의류 소매판매액 증가율(전년동기비): (1분기) 13.0% → (2분기) 9.8% → (3분기) 3.9%
 - 의류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감률(전년동기비, 통계청): (1분기) 12.4% → (2분기) 14.7% → (3분기) 13.3%
- 내수 증가는 국내 생산보다는 수입 증대에 기인, 수입단가 인상에 따른 가격효과로 금액 기준 내수가 큰 폭 성장

□ 생산은 하반기 이후 급격한 내수·수출 둔화 및 수입 확대로 감소

- 상반기 생산은 1분기 수출 호조 및 내수 확대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, 2분기 이후 대내외 수요 증가세 둔화로 생산 물량이 줄면서 감소
 - 품목별로는 코로나19 영향 완화로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의류 내수가 크게 확대되며 봉제 의류 및 편직 의류 생산이 증가
 - 의류 생산 증감률(전년동기비, 통계청): (1분기) 6.5% → (2분기) -1.6% → (3분기) 7.4%
 - 반면 화섬직물 감소에 따른 국산 화섬원사 수요 감소, 수입 원사 사용 확대 등으로 화섬 생산 물량은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, 고환율에 따른 PTA, MEG 등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은 더욱 악화
 - 화섬 생산 증감률(전년동기비, 통계청): (1분기) -11.0% → (2분기) -18.1% → (3분기) -20.0%
 - 면방업계 역시 글로벌 의류 소비 부진에 따른 면사 수요 감소로 감산을 지속하고 있지만, 재고 채증, 글로벌 면사 값의 지속 상승, 최고가 생산투입용 원면 사용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 악화
 - 방직 생산 증감률(전년동기비, 통계청): (1분기) -2.6% → (2분기) -12.6% → (3분기) -11.2%

□ 수입은 의류 및 중저가 섬유 소재 수입 확대, 수입단가 인상으로 큰 폭 증가

○ 2022년 수입은 내수 확대 및 생산투입용 부자재 섬유 수요가 확대되면서 큰 폭 증가

- 불황기 중저가 및 고가 제품 소비의 이원화 심화 트렌드에 따라 수입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, 특히 의류 수입은 10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비 19.4% 확대되어 수입 확대 견인
- 수입 물량은 9월 누적 기준 0.6% 감소했으나, 수입단가는 14.9% 상승
- 총수입 증감률(전년동기비, 한국무역협회): (1분기) 15.1% → (2분기) 9.9% → (3분기) 17.0%
- 의류 수입 증감률(전년동기비, 한국무역협회): (1분기) 17.8% → (2분기) 17.3% → (3분기) 25.9%

2. 2023년 대내외 여건 변화

(1) 대외 여건 변화

□ 세계 수요

○ 2023년 글로벌 섬유 수요는 글로벌 여건 악화로 올해보다 더욱 둔화할 전망
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, 미국·중국 등 세계 경제 성장 둔화, 주요국의 긴축재정 및 금리 인상 등은 민간 소비 및 세계 산업활동을 저해하여 섬유·의류 수요를 위축
- 미국 및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,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속으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

〈표 7-1〉 섬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

주요 요인	영향 정도
·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세계 경기 부진(미국, 중국, EU 등 주요국 경기 위축)	⬇
·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	⬇
·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 소재 수요 확대	⬆

주: (전년 대비) 영향 정도, ⬇⬇ 큰 폭 감소, ⬇ 다소 감소, ⬆ 다소 증가, ⬆⬆ 큰 폭 증가.

- 리사이클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, 전기차 성장에 따른 아라미드 타이어코드, 5G 확대에 따른 아라미드, 수소차 저장 용기용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제품 수요 확대

□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

- 미국, 유럽, 일본 등 주요국의 의류 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소폭 감소
- 우리나라의 주요 의류 생산기지인 베트남, 중국, 인도네시아는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 의류 수입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출 의류용 원사 및 직물 등 섬유 소재 조달이 감소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
- 다만 금년 미·중 무역분쟁에 따른 제조의 탈중국 현상으로 베트남의 섬유 생산이 나홀로 성장을 달성하여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가운데, 내년에도 CPTPP, EVFTA, RCEP 등 무역협정 효과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소재 수요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

〈표 7-2〉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

	비중(%) ¹⁾	2022년 추정	2023년 전망	특성(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)
베트남	20.0	☹	☺	·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· 무역협정 효과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·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
미국	13.9	☺	☹	·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· 고기능성 섬유 소재 수요 증가
중국	12.2	☹	☺	·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· 미·중 기술패권 경쟁 등 탈중국 지속 · 중국 봉쇄 완화에 따른 생산 정상화
EU	10.6	☹	☂	·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· 고기능성 섬유 소재 수요 증가
인도네시아	6.7	☹	☹	·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
일본	5.2	☹	☹	·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· 고기능성 섬유 소재 수요 증가
합계	100	☹	☹	·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

주: 1)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(2022년 기준).

2)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, ☹ -10% 이하, ☂ -10~-5%, ☹ -5~0%, ☺ 0~5%, ☂ 5~10%, ☂☂ 10~20%, ☂☂☂ 20% 이상.

-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및 봉쇄 완화 조치에 의한 생산 정상화는 의류 소재 수요를 확대할 가능성

□ 해외 생산

- 섬유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 긴축재정에 따른 고금리, 고유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섬유·의류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생산 감소 전망
- 베트남은 탈중국 현상에 의한 반사이익이 지속되는 가운데, 다양한 무역협정 효과에 의한 수출경쟁력 제고, 효성첨단소재의 산업자재용 소재의 베트남 이전 등으로 생산 증가 전망
 - 효성첨단소재는 2021년 국내 스틸코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 데 이어 2023년에는 PET 타이어코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
- 중국 역시 코로나로 인한 봉쇄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생산 정상화에 따른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, 해외 생산의 탈중국 현상으로 효과는 미미할 전망

〈표 7-3〉 섬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

지역	2022년 추정	2023년 전망
베트남	▲	○
인도네시아	▲	▲
중국	▲	▲
기타	▲	▲
전체	▲	▲

주: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, ▲▲ -10% 이하, ▲ -10~-5%, ▲ -5~0%, ○ 0~5%, ☆ 5~10%, ☆☆ 10~20%, ☆☆☆ 20% 이상.

□ 제품단가 변화

- 섬유제품의 단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유가 및 화섬원료 가격 하락, 원면 및 원사 가격 하락세 지속,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지속 확대, 고환율에 따른 글로벌 바이어들의 단가 인하 압력 등이 단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

〈표 7-4〉 섬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

주요 요인	영향 정도
·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(원유, 화섬원료, 원면, 염료 등)	⬆
·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및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	⬇
· 온라인 거래 지속 확대	⬇

주: (전년 대비) 단가 변화, ⬆⬆ 큰 폭 하락, ⬇ 다소 하락, ⬆ 다소 상승, ⬆⬆ 큰 폭 상승.

(2) 국내 여건 변화

□ 국내 수요

- 2023년 국내 경기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, 고물가, 부동산 시장 불황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 성장 역시 둔화하면서 섬유·의류의 수요 부진 전망
- 다만 해외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는 것과는 달리 가격 기준 국내 수요는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에 따른 가격효과로 수입 증가에 의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- 국내 제조활동의 둔화가 예상되면서 산업용 자재의 수요 둔화 불가피, 반면 섬유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고도화에 따른 수요 증대

〈표 7-5〉 섬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

주요 요인	영향 정도
· 경기 성장세 둔화, 부동산 시장 불황,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	⬇
· 국내 제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	⬇
· 경기 부진에 따른 가성비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및 섬유 소재 수입수요 증가	⬆
·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	⬆

주: (전년 대비) 영향 정도, ⬆⬆ 큰 폭 감소, ⬇ 다소 감소, ⬆ 다소 증가, ⬆⬆ 큰 폭 증가.

□ 공급능력

- 국내 섬유업체의 생산능력은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에 의해 결정되며, 코로나19 이후 섬유산업의 생산능력은 투자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

- 섬유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범용제품의 경우 수출 및 내수 등 수요변화에는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, 일부 생산효율을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 진행
 - 섬유 소재의 생산능력 변화(2015=100, 통계청): (2019) 92.9 → (2020) 93.1 → (2021) 88.5 → (2022. 1/4) 79.1 → (2/4) 77.2 → (3/4) 76.9
 - 섬유산업의 가동률(전년동기비, 통계청): (2020) -11.9% → (2021) 11.5% → (2022. 1/4) 16.2% → (2022. 2/4) 9.5% → (2022. 3/4) 6.0%
- 반면 업스트림 화섬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,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첨단 섬유 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되어 공급능력 지속 확대
- 효성첨단소재: 2023년 4월까지 탄소섬유 2,500톤 생산설비 증설(469억 원), 2024년까지 아라미드 5,000톤으로 증설(612억 원) 등
 - 코오롱인더스트리: 2023년까지 아라미드 7,500톤 증설 계획(2,300억 원)
 - 태광산업: 2025년까지 아라미드 3,500톤 증설(1,450억 원)

〈표 7-6〉 섬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

주요 요인	영향 정도
·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	☆
· 생산 효율화(생산시스템 개선)	☆
·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 및 폐업 등 공급 감소	⬇⬇
·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	⬆

주: (전년 대비) 영향 정도, ⬇⬇ 큰 폭 감소, ⬆ 다소 감소, ☆ 다소 증가, ☆☆ 큰 폭 증가.

- 코로나19 이후 수요 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해외 이전하는 등 국내 설비의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
- 의류 수요 부진으로 오더가 급감하고, 높은 인건비와 물류비, 염료 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원단 염색업체의 폐업 속출
 - 화섬 원사의 경우 주력 품목인 폴리에스터의 감산 지속, 산업자재용 소재의 해외 이전 등

〈표 7-7〉 섬유산업의 2023년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

전망	2022	↗	2023	↗
투자 종류	· 기존 설비 확장, 연구개발			
투자 수요 특성	· 단순 생산능력 확대,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, 유지보수			
원인	- 탄소중립에 따른 첨단 섬유 소재의 수요 확대 대응 설비 증설 투자 진행: 전기차, 5G, 수소차 확대 등 대응 · 효성첨단소재: 2023년 4월까지 탄소섬유 2,500톤 생산설비 증설(469억 원), 2024년까지 아라미드 5,000톤으로 증설(612억 원) 등 · 코오롱인더스트리: 2023년까지 아라미드 7,500톤 증설 계획(2,300억 원) · 태광산업: 2025년까지 아라미드 3,500톤 증설(1,450억 원) - 기획, 생산공정, 유통/홍보 등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설비 및 R&D투자 진행 - 범용 섬유 소재 및 봉제 의류 등은 설비효율을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 진행			

주: 1) 전망: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, ↑↑ -10% 이하, ↑ -10~-5%, ↗ -5~0%, ↘ 0~5%, ↓ 5~10%, ↓↓ 10~20%, ↓↓↓ 20% 이상.
 2) 투자 종류: 신규 설비 도입, 기존 설비 확장, 합리화, 연구개발, 정보화, 인력양성 등.
 3) 투자 수요 특성: 단순 생산능력 확대,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, 유지보수 등.

3. 2023년 전망

□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감소

- 2023년 수출은 지정학적 위험, 고금리 및 고물가,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로 수출 감소가 소폭 확대 예상
- (증가 요인) 제품의 수요구조 고도화 및 제품 첨단화, 주요 국가의 정치적 요인, 기술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
 -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지속가능 성장 요구, 탈탄소 대응을 위한 고기능성 섬유 소재 및 제품 수요 확대에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
 - 전기차(아라미드 타이어코드), 탄소섬유(CNG 고압용기, 케이블용, 재생 에너지용 등), 5G(광케이블용 아라미드) 등
 - 2022년 부진했던 해외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이 하반기 이후 증가할 전망
 - 중국의 제로 코로나 출구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점진적인 생산 정상화로 수출 의류용 소재 수요가 다소 증가할 전망

- 미·중 분쟁의 반사이익을 누렸던 베트남의 생산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국산 원사 및 원단 수요 확대 전망, 미국의 중국 제재로 한국산 면직물 등 수요 확대 기대
 - 한류 열풍이 일본, 동남아, 미국, 유럽에서 중동 등지로 영역을 확대해 가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로 의류 수출에 긍정적
 - 그 밖에 상반기 원화 약세 지속에 따른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, 고유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동의 블랙포털 원단 수요 확대 등이 수출 확대에 기여
- (감소 요인) 지정학적 위험, 고금리 및 고물가,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로 감소
-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경색 및 물가 상승, 금리 인상 도미노 등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 급감
 - 미국 긴축 통화정책, 영국 파운드화 급락 및 유로존의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며 의류 수출 감소 불가피
 - 수요 감소에 따른 원유가 하락으로 급상승했던 수출단가가 다소 하향 안정화하면서, 수요가 줄어든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
 - 글로벌 산업생산 위축으로 산업자재용 섬유 소재의 수출 둔화 전망

〈표 7-8〉 섬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

증가 요인	감소 요인	종합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베트남,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향 섬유 소재 수출 확대 · 고기능성 섬유 수출 확대 ·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· 상반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· 고유가에 의한 중동 성장으로 블랙포털 수요 호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요국 통화 긴축 및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 · 고금리,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 ·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, 코로나 등 불확실성 상존 ·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요 위축 · 해외 생산 확대 ·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생산 확대 및 글로벌 경쟁 심화 · 수출단가 하향 안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 소비 감소, 글로벌 수요산업 부진으로 산업자재용 섬유 수출 감소

□ 내수는 가격효과로 증가하나 증가폭은 크게 둔화

○ 2023년 내수는 경기 부진, 민간 소비 둔화,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섬유·

의류 수요 위축으로 가격 기준 증가세가 크게 둔화

- 내수의 가격 기준 증가는 수입액 증가에 기인하며, 내년 상반기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효과로 수입액이 큰 폭 증가하겠으나, 하반기 내수는 하락 전환 전망

○ (증가 요인) 상반기 높은 원/달러 환율에 의한 가격효과, 여행 정상화 등 외부 활동 증가, 수입 확대 등으로 내수 확대

- 해외여행의 정상화, 코로나19 영향 완화, 골프에 이어 테니스·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소비 증가 및 기능성 스판덱스 등 의류용 소재의 내수 판매 확대 예상
- 지속적인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증가, 중저가 섬유 소재의 수입수요 확대, 해외 이전한 산업자재용 소재(PF/NF)의 수입 증가
- 효성티앤씨의 나일론 공장 화재 이후 국내 생산 철수 및 중국, 베트남 등 해외 관계사 생산분 수입으로 내수 대체

○ (감소 요인) 부동산 시장 불황 지속,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 등으로 구매력이 낮아져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

- 경기 위축 및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
- 국내 제조업의 생산 둔화에 따른 산업자재용 소재 수요 부진

〈표 7-9〉 섬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

증가 요인	감소 요인	종합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반기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·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· 온·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· 중저가 의류 및 섬유 소재 수입 확대 ·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내 경기 둔화, 금리 상승, 물가 상승,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· 섬유산업의 생산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 및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내수 성장세 둔화

□ 생산은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및 국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

○ 2023년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감소세 지속

○ (증가 요인) 디지털 전환 강화, 친환경 트렌드 대응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, 공급망 리스크 대비 등

- 국내외 수요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국산 섬유 소재의 고기능·성능 제품의 생산 확대
 - 탄소섬유의 대일본 및 대미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투자 확대(2022~2023년 각각 1개 라인씩 증설)로 생산 증가
 - 파라 아라미드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투자 확대(효성첨단소재, 코오롱인더스트리)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생산 증가 예상
-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프렌드쇼어링(friend-shoring), 한국 리쇼어링(reshoring) 등으로 국내 생산 증가
 - 프렌드쇼어링: 미국의 우호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 생산
 - (주)이랜드월드: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동대문 일대에 의류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국 등 해외 소싱 비중을 낮추고 국내 생산을 점차 높일 계획

○ (감소 요인) 세계 경기 둔화 및 범용제품 중심의 대내외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와 재고 증가가 이어지며 생산 감소

-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증가세 둔화로 생산 감소
-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 확대 및 국내 생산 대체
 - 세아상역(주): 2022년 8월 코스타리카에 제2 방적공장 설립, 2022년 하반기 제3 방적공장 완공 예정
 - 한세실업(주): 2024년 방적-편직-염색 등의 수직계열화를 목표로 중남미 투자(2026년 3억 달러)
 - 효성첨단소재의 산업자재용 생산 중단 및 베트남 이전
- 그 외에 수요 감소에 대응한 감산, 경영난에 직면한 자발적 폐업 등 설비 능력의 지속적 감소 및 생산 위축
 - PF 범용제품의 대내외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재고 증가로 감산 진행 지속

〈표 7-10〉 섬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

증가 요인	감소 요인	종합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디지털 전환,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· 공급망 리스크 대비 국내 생산 증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출 감소 및 내수 성장세 둔화 ·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· 폐업 등 국내 생산 인프라 지속 감소 · 해외 중저가 섬유 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

- 경영난으로 화섬직물 및 염색가공업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
- 화섬 원사의 경우 주력 품목인 폴리에스터의 감산 지속, 산업자재용 소재의 해외 이전 등

□ 수입은 단가 상승으로 지속 증가하나, 내수 둔화로 증가세는 큰 폭 축소

- 2023년 수입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나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 소재 수요 확대와 높은 수입단가로 증가세 유지
- (증가 요인) 경기 둔화에 따른 가성비 중시 소비 증가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저가 섬유·의류 수입수요 확대
 - 해외 생산제품,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중저가 의류 및 섬유 소재 수입이 확대
 - 내년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수입단가 인상으로 수입액은 큰 폭 증가

〈표 7-11〉 섬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

증가 요인	감소 요인	종합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· 국내 생산 투입용 중저가 섬유 소재 수입 확대 · 수입단가 상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기 둔화, 고금리,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감소 ·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 수요 위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불경기 대응 중저가 수입 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로 수입 확대

- (감소 요인) 내수 부진에 따른 의류 및 산업자재용 소재 수입 위축
 - 경기 둔화, 고금리,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수입수요 제한
 -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수요 위축
 - 국산 중간재·가공재의 해외 수요 감소로 섬유 원자재 및 섬유 소재(생지) 수입 감소

〈표 7-12〉 섬유산업의 수급 전망

단위: 십억 원, 백만 달러, %

	2021	2022			2023		
		상반기	하반기		상반기	하반기	
수출	12,807 (14.0)	6,470 (5.6)	6,194 (-7.3)	12,664 (-1.1)	6,190 (-4.3)	6,210 (0.3)	12,400 (-2.1)
내수	67,510 (1.9)	34,199 (4.3)	37,461 (7.9)	71,660 (6.1)	35,249 (3.1)	37,361 (-0.3)	72,610 (1.3)
생산	61,200 (1.2)	30,715 (0.9)	30,250 (-1.7)	60,965 (-0.4)	30,570 (-0.5)	30,125 (-0.4)	60,695 (-0.4)
수입	18,299 (12.9)	9,285 (12.6)	11,198 (11.4)	20,483 (11.9)	9,395 (1.2)	11,570 (3.3)	20,965 (2.4)

주: 1) ()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.
2) 내수는 생산+수입-수출로서 재고 포함.

4. 시사점

○ 친환경 대응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

- 친환경 트렌드 및 글로벌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페트병, 폐섬유·폐의류 리사이클 확대 추진 및 관련 애로 해소 지원 필요
- 물리적 리사이클 품질 개선 필요, 케미컬 리사이클 R&D 확대 지원 필요
- 섬유, 식품 포장재 업종의 원료 확보 경쟁 심화
- 저가·가짜 수입산의 시장 유입 확대 등 애로 대응
- 고품질 원료 확보, 리사이클 진위 여부 분석, GR 인증 및 이를 활용한 공공기관(군·경·관 및 공기관 등)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한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

○ 생산 및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슈퍼섬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여건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원

- 중국에 집중된 원료의 소싱처 다변화 또는 국내 투자 검토
- 수출(85% 수준) 위주 시장의 내수 전환 필요: 국산 소재 활용 확대 및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내수 기반 확보 정책 및 지원 방안 필요

-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: 원재료 투자 유도 및 관세 감면(공장 자동화 기기 관세 감면 대기업 적용, 할당 관세) 적용 확대

○ 내수 확대를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기반 구축

- 안정적인 내수 기반 구축을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강화
 -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다운스트림 및 브랜드에서 국산 소재 활용을 활성화하고 다운스트림의 국내 생산 활성화 등 섬유산업 기반 유지 대책 필요
- 전투복에 한정된 국방 섬유제품 국산 소재 사용 제품 조달을 기타 섬유 피복류 부분까지 품목 확대 필요
- 봉제, 스판덱스, 산업자재용 섬유 등 해외로 투자되는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 필요

○ 대외 환경변화 대응 니치마켓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지원

- 단기적으로 G2(Group of Two, 미국·중국), EU 및 러시아의 정치적 대립 여건에서 니치마켓 발굴, 경제 호황의 증대에서 새로운 기회 포착
 - (글로벌 탈중국화) 미·중 갈등에 따른 미국 및 EU 바이어의 중국산 비선호 추세로 가격경합의 국내산 섬유 소재 반사이익 활용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수출 지원
 - (유럽 에너지 위기) 미·EU 제재에 반발한 러시아의 대EU 가스공급 중단(2022. 6)으로 아웃도어 등 고단가의 동계 방한 의복 수출 확대 지원
 - (중동지역 호황) 산유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, 관광 활성화 여건 등을 활용하여 의류용 소재 및 섬유제품 등의 발굴 및 수출 확대 지원

〈표 7-13〉 섬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

	주요 내용
정책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강화되는 기후·환경규제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대응 ·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확대
대응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 · 고성능 슈퍼섬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여건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원 · 내수 확대를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기반 구축 · 대외환경 변화 대응 니치마켓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지원